

모방 욕망에 의한 폭력의 서사를 활용한 서사 치료의 소설교육적 의의

선 주 원(광주교대 국어교육과 교수)

〈 목 차 〉

1. 서론
2. 서사 치료의 개념과 폭력 서사의 서사 치료적 의의
3. 모방 욕망에 의한 폭력의 서사를 활용한 서사 치료 과정
 - 3.1. 모방 욕망에 의한 폭력 서사의 형상화 양상
 - 3.2. 서사 치료를 위한 폭력의 서사 활용의 의의
 - 3.3. 모방 욕망에 의한 폭력의 서사를 활용한 서사 치료 과정
4. 폭력의 서사를 활용한 서사 치료 과정의 소설교육적 의의
5. 결론

국문초록

인간에게 모방은 행위의 동력이자 문명의 근간이 된다. 그러기에 인간은 ‘모방하는 인간’으로서 언제나 타인과 같아지거나 그 이상이 되려는 욕망을 갖는다. 그런데 이런 모방 욕망의 주체가 욕망의 매개자와 짝패가 될 때 폭력이 발생한다. 이런 모방 욕망에 의한 폭력의 서사는 르상티망과 나쁜 상호성에 의한 폭력, 순화 폭력과 희생양 메커니즘에 따라 구체화된다. 신체적이거나 정신적 폭력을 당한 사람의 경우에는 폭력성이 구현된 서사에 공감적 투사를 하는 과정에서 불안과 우울에서 벗어나 자기다움을 다시 모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모방 욕망에 의한 폭력의 서사 치료적 의의를 갖는다.

이 글에서는 모방 욕망에 의한 폭력의 서사를 활용한 서사 치료의 과정을 ‘치료 도입: 작품 서사에 대한 이해와 해석’, ‘치료 전개: 작품 서사에 대한 공감 및 정신적 상처 환기’, ‘치료 고조: 정신적 상처를 자기 서사로 표현하기’, ‘치료 마무리: 과거의 정신적 상처에 대한 평가 및 평정심이 유지되는 자기 서사 표현하기’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주제어 : 모방 욕망, 모방 욕망에 의한 폭력의 서사, 폭력의 서사 활용 서사 치료, 서사 치료의 소설교육적 의의

1. 서론

인간의 삶 자체는 서사이고, 살아간다는 것은 욕망에 의해 서사를 이해하고 만드는 행위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서사적 존재로서 개인이 서사를 이해하고 만드는 과정에는 문화적 규범이나 타자의 욕망과의 부딪힘이 수반되며, 그 과정에서 각 개인의 욕망은 좌절되기도 한다. 그러한 욕망의 좌절을 경험하면서 개인은 심리적 장애나 상처를 안게 된다. 이러한 심리적 장애나 상처는 적절한 치료를 필요로 하지만,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문제적 행동이 생겨나기도 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각 개인이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 자신의 상황을 극복하고 사회적 성취를 이루기 힘든 환경에 처해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청년들은 구직을 아예 포기하거나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노년층도 부모나 자식들의 뒷바라지로 인해 정년이 없는 생활 전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우울감 때문에 타자에 대한 배려보다는 무관심과 분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타자에 대한 무관심과 분노 속에 개인들은 정신적 피로와 돈에 대한 강박

적 집착을 보이면서 욕망의 좌절로 인한 정신적 상처를 표출하고 있다. 이는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그것이 국가적 이슈로 부각되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실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나 학계에서는 인문학적 소양과 힐링(healing) 혹은 ‘슬로우 라이프(slow life)’를 강조하면서, 각 개인의 행복에 초점을 둔 많은 논의들을 쏟아내고 있다. 학계에서도 욕망의 좌절로 인한 정신적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치료’를 위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¹⁾.

서사적 존재로서 개인이 욕망의 추구와 그것의 좌절을 통해 안게 되는 심리적 상처의 치료는 그가 본래적 자아를 찾고 정체성을 새롭게 모색하는 토대가 된다. 더군다나 소설을 교육하는 소설교육에서는 서사적 존재로서 학생들이 욕망의 추구와 그것의 좌절을 통해 안게 되는 정신적 상처를 자기 혹은 타자의 서사를 통해 이해함으로써, 그러한 상처를 치료하여 서사적 정체성을 발달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적인 교육내용으로 부각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서사적 존재로서 자기 혹은 타자의 서사를 통해 삶의 서사가 만들어지는 총체적인 삶의 환경을 인식하면서, 더 나은 존재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욕망의 추구과정에서 타자나 사회와 불화함으로써 개인들이 안게 되는 정신적 상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정과 방법의 마련이다. 이와 관련해서 미술이나 음악, 여행, 문학 등의 영역에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문학 영역에서는 고전문학 분야에서 ‘문학치료학’적 관점을 제시하거나 치료의 과정을 위한 진단이나 검사도구개발(정운채, 2015a, 2015b), 문학의 치유적 기능 대한 강조(송명희, 2012;엄찬호, 2010;

1) 치료는 병을 고치거나 상처를 아물게 하기 위한 단순한 외과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하고 치유는 병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 그 병이 없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말한다(전홍남, 2014:308). 따라서 내담자의 정신적 상처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을 찾아 그것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치유에 해당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작품 서사를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자기 서사를 생산하여 정신적 상처를 어루만지는 것은 치유라기보다는 치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서사 치료의 과정이나 후에도 내담자의 정신적 상처는 수시로 재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호정·이상우, 2013)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문학 작품을 활용한 독서치료나 시 치료, 그리고 영화 및 드라마 연행에 의한 통합적 치료²⁾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문학의 치유/치료적 기능에 주목하여 문학 작품에 대한 수용이 독자의 정서적 치유/치료에 어떤 의의를 갖는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욕망의 좌절로 인한 개인의 정신적 상처를 치료하는 구체적 과정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한편 전홍남(2014)은 문학 치료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작품 서사에 대한 수용과 해석, 그리고 내담자의 치료로 이어지는 문학 치료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그의 논의는 이 글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일상의 모방 욕망에 의한 폭력의 서사를 활용한 서사 치료 과정을 마련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리고 손민영(2017)도 서사 치료의 자기 서사에 대한 탐색을 바탕으로 자기 발견을 통한 성장의 글쓰기가 갖는 의의를 유형별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의 논의는 내담자의 글쓰기가 갖는 치료적 효과를 밝혀 연구자의 논의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 글은 일상의 모방 욕망에 의한 폭력의 서사를 활용한 서사 치료의 과정을 밝히고, 그것이 갖는 소설교육적 의의를 밝히고자 한다. 이 글에서 핵심 논의의 사항은 모방 욕망, 모방 욕망에 의한 폭력 서사, 폭력의 서사를 활용한 서사 치료의 과정, 폭력 서사를 활용한 서사 치료의 소설교육적 의의 등이다. 이를 위해 작품 서사로 제시된 폭력의 서사에 대한 학생의 글에 나타난 서사적 치료의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³⁾. 이러한 것들이 핵심 논의의 사항이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방 욕망은 인간의 행위의 동력이자 문명의 근원으로서 ‘모방하는

2) 통합적 문학 치료는 문학 작품을 읽고 자신의 서사를 말하거나 쓰기, 드라마로 연행하기 등과 같이 작품을 읽은 후 독자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심리적 상처를 끄집어내어 치료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심리적 상처나 심리-신체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문학 작품이나 자기 서사 혹은 타자의 서사를 듣고 말하고, 글로 쓰면서 심리적 상처를 회고하면서 그것을 치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변학수, 2006:48-74 참조).

3) 이러한 연구 방법은 구체적 사례를 문화기술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해당한다.

인간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모방 욕망에 의해 주체와 타자 간의 갈등이 생겨나며, 이러한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폭력성이 생겨난다. 이러한 폭력성은 오늘날 문제 되고 있는 우울이나 불안의 근원적인 기제로 작용하면서, 타자에 대한 르상티망에 의한 여러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둘째, 모방 욕망에 의한 폭력의 서사는 내적 매개에 의한 모방 욕망의 주체와 매개자가 짝패가 되어 서로에 대한 원한 증오를 가짐으로써 상호 폭력성이 심화되는 양상을 드러냄으로써, 차이의 상실에 의한 상호폭력의 연쇄를 잘 드러낸다. 오늘날의 사회가 상호간의 배제와 극심한 경쟁을 통한 정신적 폭력성이 난무하고, 그러한 폭력성의 많은 것들이 상호적임을 고려한다면, 모방 욕망에 의한 폭력의 서사를 살펴보는 것은 나쁜 상호성에 의한 르상티망이 만연해 있는 ‘지금-여기’의 삶을 성찰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상호간의 폭력에 의한 정신적 황폐감이 만연한 오늘날의 사회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치료를 위한 과정들이 구체적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폭력의 서사를 활용한 서사 치료의 과정을 제시하는 것은 독자가 작품 서사의 수용을 통해 정신적 상처를 드러내어 평온한 상태에 도달하고, 새로운 자기 서사 생산을 통해 정서적 치료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폭력의 서사에 대한 수용과 자기 서사 생산을 통해 독자가 정서적 위안을 얻고 정신적 상처를 치료하면서 서사적 정체성의 발달을 도모하는 것은 상호간의 폭력성이 난무한 오늘날의 사회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모방 욕망에 의한 폭력의 서사를 활용한 서사 치료는 소설교육의 지평을 확장하면서 정신적 상처를 안고 있는 학생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희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학교 폭력에 시달리거나 그러한 것을 간접 경험한 학생들이 타자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여 자기 삶을 성찰함으로써 상호적인 폭력성을 배제하는 윤리적인 실천을 수행할 수 있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2. 서사 치료의 개념과 폭력 서사의 서사 치료적 의의

서사 치료는 정상적인 심리상태를 지니지 못한 사람을 서사 읽기를 통해 자기 서사를 드러내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심리 상태로 돌려놓고자 하는 일종의 심리치료이다(전홍남, 2014:306 참조). 따라서 서사 치료는 타자화된 자기 서사 혹은 타자의 서사를 읽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심리 상태를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자기 서사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서사 치료는 그의 무의식이나 억압되고 상처받은 감정에 접근해서 그가 안고 있는 무의식이나 심리적 상처를 드러내고, 그 상처를 의미화하여 치료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정신분석적 치료와 유사한 면을 갖는다. 그렇지만 서사치료가 정신분석적 치료와 다른 점은 심각한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서사 치료의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서사를 읽고 이해하면서 자기 서사를 만들어 자기 성찰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서사 치료는 내담자가 정신적 상처를 치료하여 자아 성장을 도모하면서 정체성을 새롭게 발달시켜 현실과 소통하면서 삶의 평안을 기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사 치료에서 치료의 매개가 되는 ‘작품 서사’는 서사화된 타자 혹은 타자화된 자기 서사로 내담자가 현실의 삶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게 하며, 그 과정에서 내담자가 정신적 상처가 있었던 ‘자기 서사’를 분석하여 치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내담자가 작품 서사를 읽으면서 정신적 상처가 있었던 자기 서사를 생산하면 서사 치료가 시작된다. 그리고 자기 서사의 생산을 통해 정신적 상처의 상태가 개선되면서 원래의 자기 서사에 변화가 일어나면 치료가 마무리된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내담자가 생산한 자기 서사를 치료자와 내담자가 상호 분석하여 구체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 서사의 구체화를 통해 내담자의 정신적 상처의 원인과 현상, 해결 방안이 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사 치료를 위해 제공되는 작품 서사는 내담자가 겪었던 일들을 회상하고, 작중인물과의 동일시를 통해 내담자가 자신의 상처를 기억에 의해 서사화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오늘날과 같이 모방 욕망의 추구와 그것의 좌절, 그리고 매개자에 대한 증오와 원한의 감정에 의해 폭력성이 쉽게 드러나는 사회에서 폭력성이 드러난 작품 서사는 내담자가 작중인물과의 동일시를 통해 자기 서사를 생산하여 정신적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매개로 작용할 수 있다. 내담자는 폭력성이 구현된 작품 서사에 대한 공감적 투사를 통해 모방 욕망에 의해 이루어졌던 자신의 폭력 서사 혹은 상처받은 서사를 생산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서사를 변형시키면서 정신적 상처를 치료하는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담자가 폭력의 서사를 매개로 하여 상처받은 자신의 서사를 생산하면서 정신적 상처를 치료하는 경험은 소설교육에서 강조하는 삶의 총체적 이해를 통한 인간다움의 도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타자의 폭력 서사를 매개로 한 서사 치료는 교육적 의도 속에서 행해지는 소설교육의 의의, 즉 인간다움의 도모와 윤리적 주체 형성의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폭력의 서사를 활용한 서사 치료는 소설교육과 관련하여 많은 의의를 가질 수 있다.

3. 모방 욕망에 의한 폭력의 서사를 활용한 서사 치료 과정

3.1. 모방 욕망에 의한 폭력 서사의 형상화 양상

르네 지라르에 따르면, 인간에게 모방은 행위의 동력이자 문명의 근간이 된다. 그러기에 인간은 ‘모방하는 인간(homo mimeticus)’으로서 언제나 타인과 같아지거나 그 이상이 되려는 욕망을 갖는다. 모방하는 존재로서 인간이

갖는 욕망은 생리적인 것을 해결하려는 욕구와 구별되는 것으로 ‘나’의 외부에 있는 어떤 존재(매개자)로부터 촉발된다. 따라서 욕망은 매개자로부터 던져진 타율적인 것으로 타인의 감정에 의해 고양된다(이찬수, 2016:213). 따라서 모방 욕망은 인간의 자율적 욕구가 아닌 매개자를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기에 갈등을 필연적으로 동반한다.

모방 욕망에 의해 주체와 타자 간의 갈등을 통한 폭력성은 한국현대소설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한국현대소설을 통해 내적 매개에 의해 모방 욕망의 주체와 매개자가 짝패로서 서로에 대한 원한과 증오를 통해 폭력성을 어떻게 보여주는지를 살펴보자.

3.1.1. 르상티망과 나쁜 상호성에 의한 폭력

모방 욕망의 주체와 욕망의 매개자의 거리가 가까운 내적 욕망의 경우 그들은 짝패가 되어 서로에게 갈등을 자아내면서 증오나 원한, 질투의 감정을 갖는다. 짝패는 서로가 서로를 자신의 소중한 것을 빼앗으려 하거나 욕망의 실현을 방해하는 존재로 여긴다. 그 과정에서 짝패 간의 나쁜 상호성에 의한 심각한 갈등과 그것을 넘어선 폭력이 발생한다. 타자의 욕망 대상을 욕망하는 주체는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매개된 것이기에 주체와 매개자는 상호간의 갈등의 심화에 의해 폭력적인 상황에 처한다. 짝패의 갈등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력, 즉 잠재적인 폭력 혹은 폭력의 잠재태가 된다(김진식, 2016:390). 이와 같은 짝패의 갈등에 의한 폭력성의 잠재태는 인간의 삶에서 본질적인 것으로 상호 폭력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짝패의 갈등에 의한 일차적인 폭력은 그에 대한 복수의 폭력을 불러오고, 이 과정의 반복에 의해 상호 폭력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욕망의 내적 매개에 따른 갈등의 심화에 의한 폭력은 대칭적이며 상호적인 것이 되기 때문이다(이미혜, 2004:9).

욕망의 내적 매개에 의해 모방 주체와 매개자가 거울처럼 ‘짝패’의 형태로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는 과정에는 서로 원수가 되어 필연적으로 ‘르상티망

(ressentiment)⁴⁾이 축적된다. 르상티망의 축적은 경쟁적 상대에 대한 상호 폭력적 성향을 보이며, 이에 따라 모방 주체는 스스로를 파괴하는 질병을 앓게 된다⁵⁾. 이러한 질병을 앓는 모방 주체로서 인간의 삶은 모방적 경쟁관계에 의해 갈등과 폭력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 모방 욕망은 타인의 지위를 차지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 사회의 갈등과 폭력의 원인이 된다. 모방 욕망에 의해 인간사회는 경쟁적 상황이 촉발되고, 그 과정에서 상호 폭력이 빈번해진다. 경쟁적 상황에서 승리가 주는 강렬함 때문에 모방 경쟁은 가속화되고, 그 과정에서 모방 주체는 매개자와 자신을 차별화하고자 한다. 그러나 모방 주체가 매개자와 자신을 차별화하고자 하면 할수록 그들은 짝패로 비슷한 존재가 된다. 그러기에 ‘나쁜 상호성’⁶⁾이 폭력적 열기를 상승시키고, 모방주체와 매개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걸림돌(스캔들)’로 여긴다(이찬수, 2016:219). 모방 주체와 매개자는 짝패로서 경쟁적 갈등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매력적인 장애물이 되어 더 큰 갈등과 그것의 심화로서 폭력적 상황에 놓인다. 이와 같은 부정적 모방에 의해 상극적 폭력과 같은 극단이 발생한다.

이러한 양상을 이문열의 「필론의 돼지」를 통해 살펴보자⁷⁾. 이 작품은 군

4) 르상티망은 강자를 향한 약자의 원한, 울분, 증오, 비난의 감정이다(이찬수, 2016:218). 지라르에 따르면, 르상티망은 극복할 수 없는 이상적 모델에 대한 질투심에서 비롯되며, 넘어설 수 없는 모델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면서 극복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모방 주체는 경쟁적 짝패인 매개자를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그에 대한 르상티망이 점차 증폭되며, 이것은 상극적 폭력으로 이어진다. 그러기에 르상티망은 짝패로서 모방의 매개자를 하였으나 그 우월성을 갖지 못한 데서 연유하는 폭력적 성향을 보이는 형이상학적 질병이라 할 수 있다.

5) 지라르는 르상티망이 전형적인 현대인의 감정이자 질병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정일권, 2013:255).

6) 르네 지라르에 따르면, ‘나쁜 상호성’은 사람들을 서로 대립시키면서도 행동을 획일화함으로써 ‘같은 것’이 성행하게 한다.(르네 지라르, 김진식 옮김, 2015(2판 5쇄:27)

7) 이 글에서 폭력의 서사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으로 제시되는 것들은 김유정의 「소낙비」, 이문열의 「나자레를 아십니까」, 「필론의 돼지」, 박민규의 「평풍」 등이다. 이들 작품들은 193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2000년대에 각각 발표되었는데, 연구자가 이들 작품들을 논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들 작품에는 모방 욕망에 의

용 열차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 불합리한 폭력의 자행과 그에 대항하지 못하는 나약한 지성인의 비애와 절망을 통해(김정진, 2006:234), 힘의 대결을 놓고 벌어지는 집단의 모방 욕망과 그로 인한 상호간의 르상티망과 폭력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 소설에서 주인공은 대학을 나온 지식인으로 제대를 위해 군용열차를 탔다가, 열차 안에서 검은 각반들이 현금을 징수하자 분노를 느끼지만 그에 저항하지 못하고 현금을 낸다. 그런데 그런 그의 행동에 대해 같은 제대원인 홍동덕이 배운 사람도 어쩔 수 없다고 모욕을 주자 심한 모멸감을 받는다. 그러다가 상황이 반전되어 제대병들의 집단적 저항에 의해 검은 각반들이 집단적 폭력을 당하자 대의명분을 생각하고 그 상황을 외면한다.

이러한 소설적 상황은 검은 각반들과 제대병들이 돈을 매개로 한 상호간의 르상티망에 의한 모방적 갈등의 격화에 따른 폭력과 복수를 하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검은 각반들이 처음에 제대병들에게 돈을 걷은 것은 제대병들이 자신들보다 더 많은 돈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이런 생각은 군 제대 후 생활고에 시달리던 그들이 제대병들에 대한 열등감과 그로 인한 모방 욕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은 각반들이 제대병들에 대한 모방 욕망으로 그들에 대한 폭력을 행했을 때, 제대병들은 검은 각반들에 대한 르상티망에 의해 그들에 대한 대항 폭력을 행사한다. 이런 상호 폭력은 결국 집단의 모방 욕망과 그로 인한 르상티망에 의한 폭력성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이러한 상호폭력의 상황에서 주인공은 아무런 행위를 하지 못한 채, 검은 각반들과 제대병 사이에서 벌어지는 대의를 상실한 맹목적 폭력이 실상은 서로를 짝패처럼 생각하는 데서 연유함을 인식한다.

3.1.2. 순화 폭력과 희생양 메커니즘

내적 매개자에 의한 모방 욕망의 부정성에 의해 상호폭력이 극에 달할

한 모방의 증개성과 그로 인한 르상티망이 잘 드러나 있다는 점, 각 시대별 폭력 서사의 양상을 살필 수 있다는 점 등이다.

때, 즉 모방 주체들이 경쟁적 모방의 추구 과정에서 스캔들이 집단의 문제가 된다고 여길 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식으로 동원하는 것은 ‘희생양 만들기’이다. 지라르에 따르면, 희생양 만들기는 ‘희생양 징후’에 의한 촉발되는 사회내부에 실재하는 폭력의 분출구로서, 폭력을 폭력으로 ‘숙이는’ 역할을 한다⁸⁾. 희생양 만들기는 사회내부의 폭력을 복수의 염려가 전혀 없는 힘없는 희생양에 집중시켜 ‘모방 폭력’을 ‘희생 폭력’으로 승화시키는 기제이다 (이미혜, 2004:12). 모방 주체와 매개자 간의 끝없는 상호 폭력은 희생양 만들기를 통해 집단의 성스러운 폭력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희생 폭력은 공동체의 위기를 초래하는 상호 폭력을 제거하기 위한 집단적 결의로서 사회 질서를 다질 수 있는 근간이 된다.

희생양은 주변인 혹은 경계인이었기 때문에 복수할 힘을 갖지 못했다. 희생양들은 보복할 수 없을 만큼 무력한 거주지나 가족이 없는 사람, 절름발이, 불구자, 병자, 전쟁포로, 노예 등이었는데, 그들은 조르조 아감벤이 말한 ‘호모 사케르(Homo Sacer)’에 해당한다⁹⁾. 희생양은 폭력을 당하더라도 복수할 가능성이 없거나 보복할 능력이 없는 자들이었다. 이러한 존재로서 희생양은 나쁜 상호성에 의한 집단적 폭력을 회피하기 위해 사회적 문제들의 원인들을 뒤집어쓴다. 그러기에 그들은 집단 전체를 둘러싼 폭력과 위기의 책임을 뒤집어쓴 채 희생당한다. 그 과정에서 희생양을 만든 주류의 사람들은 폭력에서 거의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제외시키며 폭력을 조성한다(이찬수, 2016:228). 폭력의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주류의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폭력을 강화하면서 희생양 시스템을 지속시킨다. 이러한 희생양 시스템은 일인에 대한 만인의 폭력을 전제로 하는데, 지라르는 이러한 폭력을 ‘순수한 폭력’ 혹

8) 르네 지라르에 따르면, 희생양 징후는 “그 체제 안에서 보자면 자기 체제가 갖고 있는 차이와 다를 수 있는 가능성, 달리 말해서 그 결과로 자신의 체제가 모든 것과 다르지 않게 됨으로써 자신이 체제로서 존재할 수 없어질지도 모를 그런 가능성이다.” 따라서 “희생 범주에 속한 사람들은 무차별화의 범죄를 당하기 쉬운 부류들이다.”(르네 지라르, 김진식 옮김, 2015:39)

9) 호모 사케르는 사람들이 범죄자로 판정된 자로, 그를 죽이더라도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는다(조르조 아감벤, 박진우 옮김, 2008:156).

은 ‘순화적 폭력(violence purificatrice)’이라 한 바 있다(르네 지라르, 김진식·박무호 옮김, 2010(2판 10쇄):63).

복수할 힘이 없는 희생양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집단의 안녕을 유지하고자 한 것은 이문열의 <나자레를 아십니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소설은 기차 안에서 화자인 ‘나’가 김 선생과 우연히 마주 앉게 된 어떤 사내와의 대화를 통해 진행된다(김정진, 2006:231). 소설의 핵심 서사는 나자레 출신인 김 선생과 마주 앉게 된 어떤 사내에 관한 것이다. 그 사내는 고아원 나자레 출신으로 아버지였던 원장, 작은 아버지였던 원감, 그리고 그와 사랑에 빠진 여자와의 관계를 기억하고 있지만, 그 기억을 일부러 기억하지 않으려 한다. 고아원 나자레에서 자신과 사랑에 빠졌던 여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자신의 안위를 보전했던 경험 때문이다.

나자레에서 아이들의 작은 영웅이었던 형(현재의 그 사내)은 누나와 공공연한 연애를 했다. 그러나 누나가 반신불수가 되자 앞날이 창창했던 형은 그녀를 버리고, 멀리 떨어진 독방에서 울며 지내던 누나는 결국 나무에 목매 자살을 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원장 아버지는 형과 이미 반신불수가 된 누나와의 결혼을 반대했고, 자신의 동생인 작은 아버지가 그녀를 겁탈하여 그녀가 임신을 하자 작은 아버지와 누나를 결혼시켰다. 그렇지만 누나는 치욕감 때문에 결국 자살을 하게 된다.

이 소설에는 누나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에 대한 형의 회한이 구체화되고 있다. 형은 누나의 자살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월남전에 자원입대를 했고, 그것도 모자라 늘 자살을 기도하는 정신적 방황에 빠진다. 형의 이런 상황은 누나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 자신의 폭력성 때문이었으며, 그 폭력성이 자신의 삶을 파탄시킨 원인이었음을 인식하는 데서 연유한다.

3.2. 서사 치료를 위한 폭력의 서사 활용의 의의

기술문명의 편리함과 정치적 자유를 누리는 대가로 우리는 숭고한 대상을 상실하고 존경심과 경외감을 잃은 시대를 맞게 되었다(권택영, 2007:151). 숭

고가 사라진 사회에서 우리는 자신의 결핍을 충족시켜 줄 것이라고 믿는 승고의 대상을 갖고자 함으로써 불안과 우울을 극복하고자 한다. 그러나 불안과 우울증의 해소는 일시적일 뿐이다. 현실의 위악적인 상황이 현실이 요구하는 바람직한 형상으로 바꾸는 승화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우리는 언제나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자기 서사의 자학성으로 힘들어한다. 자기 서사의 자학성이란 남들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데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의 서사가 형편없으며¹⁰⁾, 이 때문에 자신은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서사의 생산을 기반으로 한다. 우리는 무한 경쟁 속에서 따뜻한 위로를 받지 못한 채, 즐거움은 없고 감시와 질서와 증오에 시달린다(권택영, 2007:154). 이러한 사회에서 인간 간에는 증오와 폭력이 증가하며, 승고를 향한 승화의 삶은 허상이 되어 간다. 메를로퐁티가 언급한 것처럼, 이것은 인간이 세상 ‘앞’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둘러싸여’ 있어서, 타자와의 경쟁과 모방 욕망, 그로 인한 우울증과 폭력을 필연적으로 안고 있는 데서 연유한다.

우리가 삶의 부정성, 즉 모방 욕망과 그로 인한 우울증, 폭력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삶의 승고함 혹은 자아의 본성을 되찾게 하는 승화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승화의 과정을 위해서는 자기 서사를 새롭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타자의 서사에 대한 공감적 투사가 필요하다. 소설에 나타난 타자의 서사, 특히 모방 욕망에 의한 폭력의 서사에 대한 공감적 투사를 통해 우리는 우울과 불안의 시대에도 자기 서사의 실체와 그 의의를 확인하면서, 타자와의 새로운 관계 설정을 통한 서사적 정체성의 발달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은 타자의 서사를 활용한 서사 치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신체적이거나 정신적 폭력을 당한 사람의 경우에는 폭력성이 구현된 서사에 공감적 투사를 하는 과정에서 불안과 우울에서 벗어나 자기다움을 다시 모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 이는 많은 사람들이 “이번 생은 망했다.”고 생각하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3.3. 모방 욕망에 의한 폭력의 서사를 활용한 서사 치료 과정

모방 욕망에 의한 폭력의 서사를 활용한 서사 치료는 개인적 치료와 집단적 치료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모방 욕망에 의한 폭력성이 주로 개인에게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하여 개인적 치료 과정에 초점을 둔다. 개인적 치료 과정은 독자로서 내담자가 서사 치료의 매개가 되는 ‘작품 서사를 수용하여 정신적 상처가 있었던 자신의 서사를 표현하고, 그 과정에서 평온한 상태에 도달해서 새로운 자기 서사를 생산하는 것’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내담자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자기 서사를 표현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므로, 자기 서사의 표현을 위한 매개로서 작품 서사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담자가 작품 서사에 이해와 해석을 통해 정신적 상처를 받았던 자기 서사를 자연스럽게 표현하면서, 점차 정서적 위안에 도달하여 새로운 자기 서사를 만듦으로써 치료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사 치료가 거쳐야 할 이러한 과정에 초점을 두어 전홍남(2014)은 ‘개인 문학치료의 테트라 시스템’을 ‘도입단계(수용)’, ‘진개단계(공감)’, ‘정화단계(참여)’, ‘해소단계(표현)’으로 나눈 바 있는데(전홍남, 2014:323), 그의 이런 과정 분류는 이 글에서 논의하고 있는 모방 욕망에 의한 폭력 서사를 활용한 서사 치료의 과정을 마련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다만, 서사 치료를 통해 내담자의 정신적 상처가 해소되어 평정심 상태에 지속적으로 머물 것 이라고 보는 점은 재고를 필요로 한다. 내담자가 서사 치료를 통해 정신적 상처를 어느 정도 해소하고 평정심 상태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항구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조성호·이희경(2008)은 내담자의 치료에 초점을 둔 공감의 과정을 ‘수용’, ‘접촉’, ‘되돌림’으로 나누고, 공감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주체의 마음과 대상의 마음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는 점을 강조했다(조성호·이희경, 2008:191). 공감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공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맥락 내에서 주체가 대상에 대한 공감적 자세를 갖는 것이다. 조성호·이희경(2008)의 관점을 이 글의 논의와 관련지어 참조할 때, 내담자가 작품 서사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공감의 대상에 대한 ‘수용’이라 할 수 있다. 이 ‘수용’은 작품 서사에 형상화된 인물의 폭력 체험이 내담자의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이때 작중인물의 폭력 체험은 내담자의 내면적인 경험 세계와 연관되며, 내담자가 작중인물의 내면적인 경험 세계를 받아들인다 함은 그에 대한 공감적 자세를 전제로 한다.

내담자의 마음에 수용된 작중인물의 폭력 체험은 내담자의 마음에서 정신적 표상으로 형상화되면서 구체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데, 이 과정이 공감의 ‘접촉’ 과정이다(조성호·이희경, 2008:193). 공감의 접촉 과정에서 내담자는 작중인물의 폭력 체험과 그로 인한 상처를 자신의 마음에 재연하면서, 마치 자신이 그 사람이 되어 폭력 체험과 그로 인한 상처를 받은 것과 같은 상상적 동일시를 한다¹¹⁾. 이러한 상상적 동일시를 통해 내담자는 작중인물의 폭력 체험과 그 상처를 생생하게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자신의 것과 조율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공감의 ‘되돌림’ 과정은 상상적 동일시를 통해 작중인물의 폭력 체험과 그 상처를 자신의 것에 조율시켜 자신의 폭력 체험과 상처를 떠올린 내담자가 자신의 상황을 객관화시켜 서사로 표현하는 것과 관련된다. 자신의 폭력 체험과 상처를 객관화시켜 서사로 표현함으로써 내담자는 자신의 상황을 작품 서사와 관련지어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에 의해 내담자는 비록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폭력 체험과 그로 인한 상처에서 벗어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모방 욕망에 의한 폭력의 서사를 활용한 서사 치료의 과정을 ‘치료 도입: 작품 서사에 대한 이해와 해석’, ‘치료 전개: 작품 서사에 대한 공감 및 정신적 상처 환기’, ‘치료 고조: 정신적 상처를 자기 서사로 표현하기’, ‘치료 마무리: 과거의 정신적 상처에 대한 평가 및 평

11) 이러한 상상적 동일시 과정에서 내담자가 갖고 있던 폭력에 대한 인식과 스키마 등과 같은 요인이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그러한 요인들에 초점을 두지 않고, 작품 서사에 대한 수용과 그로 인한 공감의 양상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정심이 유지되는 자기 서사 표현하기'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들은 내담자의 폭력 체험과 그 상처의 치유에서 내담자의 감정 변화 양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작품 서사를 매개로 한 서사 치료 과정에서 내담자는 자신의 폭력 체험에 기반을 두어 작품 서사를 수용하면서 그것의 의미를 수용하면서 자신의 폭력 체험과 상처를 환기하는 감정적 격화를 경험한다. 나아가 감정의 격화 과정에서 내담자는 자신의 감정 격화의 원인과 해소 방안에 대한 도모 속에 감정적 격화 양상을 서사로 표현하여 자신의 부정적 감정 반응을 수정하고자 한다. 자신의 부정적 감정 반응을 수정하면서, 내담자는 부정적 감정을 대치하는 새로운 감정을 생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나아가 새로운 감정 생성을 통해 내담자는 새로운 감정 생성이 가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 이러한 판단에 이르면 내담자는 비록 영구적이지는 않지만 평정심에 도달할 수 있다.

3.3.1. 치료 도입: 작품 서사에 대한 이해와 해석-수용

내담자가 작품 서사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통해 서사 치료의 과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작품 서사에 대한 의식적인 수용이 필요하다. 작품 서사는 내담자의 정신적 상처와 비슷한 상처를 당한 인물이 제시될 필요가 있는데, 그 인물의 상처에 대한 수용을 함으로써 내담자는 서사 치료의 길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작품 서사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통해 내담자가 자기 이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에 대한 논의를 박민규의 『핑퐁』에 나타난 학교 폭력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박민규의 『핑퐁』에는 학교의 짱인 치수가 패거리를 만들어 힘이 없는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여학생에게 원조 교제를 시키는 상황이 제시된다. 이러한 상황은 치수가 조직 폭력배에 대한 모방 욕망에 의해 학교 폭력과 성폭력을 행하고 있음을 드러내면서, 치수 패거리와 '나'로 대변되는 힘없는 자들 간의 갈등이 인간 삶에서 본질적인 것임을 드러낸다. 그러다가 치수가 지명 수배되자 그의 패거리였던 '종모'가 치수를 대신하여 '나'에게 폭력을

행하는데, 이 상황은 치수에 대한 종모의 모방 욕망에 의한 폭력성을 드러낸다. 따라서 이 소설은 일상의 모방 욕망에 의해 학교 폭력이 순환적으로 반복되는 양상을 잘 보여준다.

이 소설에서 ‘나’는 학교 폭력이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폭력적인 집단의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데서 비롯됨을 인식한다. 그러기에 ‘나’는 집단적인 힘을 대표하는 또 다른 존재, 즉 종모와 같은 존재에 의해 여전히 폭력을 당하면서 악이 힘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내담자는 ‘나’의 이런 결론을 이해하면서 결국 세상의 많은 것들이 너무 참혹함을 인식하면서, 인간 삶에 존재하는 힘의 우열 혹은 우월한 자와 열등한 자의 관계가 어디에서 연유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각자의 삶에 어떤 압박감을 주는지를 성찰할 수 있다. 이러한 성찰을 통해 내담자는 일상에 존재하는 모방 욕망에 의한 폭력성이 도처에 존재하며, 그러한 폭력성이 개인의 삶에 주는 상처들을 해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3.3.2. 치료 전개: 작품 서사에 대한 공감 및 정신적 상처 환기

정서적 불안과 우울이 도처에 만연한 오늘날의 사회에서 타자에 대한 공감은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공감은 수평적 위치에 있는 대등한 인간으로서 불행한 처지에 놓인 사람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그를 위해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김성진, 2013:335). 공감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은 타자가 정신적으로 상처받았거나 불안과 소외의 상태에,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을 때 등이다. 따라서 공감은 타자에 비해 우월한 위치에서 은혜를 베푸는 동정과는 다르다. 인간과 인간,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것으로서 공감은 타자에 대한 이해와 그를 위한 행위, 그리고 그러한 이해와 행위를 통한 자기 이해의 확장을 전제로 한다. 타인에 대한 공감, 특히 고통 받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은 이타적 행동을 촉발시키는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조성호·이희경, 2008:170) 공감을 위해서는 타자의 정서나 체험을 의식적으로 이해하려는 태도, 타자와의 일정한 거리를 갖되 타자를 위한

행동을 실천하려는 태도, 타자를 자아의 거울로 여기면서 존중하는 존재론적 태도 등이 필요하다. 그러기에 공감에는 필연적으로 자신과 타자 사이의 일정한 거리를 필요로 하며, 그 거리에 의해 주체는 타자의 체험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동일시 혹은 동화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내담자가 작품 서사에 대한 공감 및 정신적 상처 완기를 통해 서사 치료를 전개해 가는 양상을 다음의 예문을 통해 살펴보자¹²⁾.

박민규의 『핑퐁』에는 폭력 집단인 치수 패거리가 몇몇 여자 아이들에게 원조교제를 시키고,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강간이나 폭력을 일삼는 잔인함을 보여준다. 그러다가 학교의 짱인 치수는 자신의 전화를 받고도 몸이 아프다며 원조교제를 나가지 않은 마리의 자취방을 찾아가, 머리카락을 뽑아버리고 프라이팬으로 사정없이 머리를 내리치는 잔인함을 드러낸다. 그런데 마리나 ‘나’는 왜 반항하지 않았을까. 나였어도 반항하기 힘들었을 것 같다. 치수가 마리에게 한 잔인한 행동은 대학생이 되었지만 중학교 때 내 친구가 당한 학교 폭력을 다시 떠오르게 했다. 내 친구는 담배 셔틀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교가 끝난 후 운동장 구석에서 집단적으로 맞았다. 그리고 그 친구를 옹호하다가 나도 엄청 맞았다. 그렇지만 이 일을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말하지 못했다. 그랬다가는 얼마나 더 맞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 후로도 몇 번 더 맞다가 졸업을 한 후 그 애들과 떨어진 후에는 더 이상 맞지 않았다. 그 일은 지금도 치 떨리는 경험으로 가끔 나를 힘들게 한다.

위의 예문에서 내담자는 제공되는 작품 서사에 등장하는 ‘마리’나 ‘나’에 대해 공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들이 경험한 폭력 체험과 그들의 태도 등에 상상적 동일시나 거리두기를 통한 공감의 과정에 의해 내담자는 자신

12) 제시된 사례 글은 광주광역시의 G교육대학교의 2018학년도 1학기 ‘대학 작문’ 강의에서 수행된 ‘서사 치료를 위한 자기 서사 쓰기’ 활동을 통해 얻은 H 학생의 글임을 밝힌다. 이 강의에서는 ‘서사 치료를 위한 자기 서사 쓰기’의 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고, 구체적인 작품 서사가 제공되었다. H 학생의 글은 작품 서사로 박민규의 『핑퐁』을 수용하고 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자기 서사의 생산이었다. 이하에 제시되는 예문은 모두 H학생의 글이다.

의 폭력 체험을 객관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상상적 동일시를 통해 내담자는 그들의 폭력 체험을 자신의 경험으로 바라보면서(조성호·이희경, 2008:173), 작품 서사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통해 과거에 자신과 친구가 당했던 학교 폭력의 상처를 환기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환기를 통해 그 때의 상처가 얼마나 크고 깊은 것이었는지를 말하고 있다. 이러한 환기는 결국 모방 욕망에 의한 학교 폭력의 문제가 지금도 여전히 그의 삶을 존재론적으로 규정하는 계기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작품 서사에 등장하는 인물의 폭력 체험을 자신의 실제 폭력 체험과 연계하면서, 그 인물을 존재론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자신의 체험을 성찰하고 있다. 이러한 성찰은 내담자가 작중인물의 폭력 체험에 대한 바라봄을 자신의 문제로 되돌리는 과정과 연관된다. 작중인물의 폭력 체험을 자신의 문제로 되돌림으로서 내담자는 자신의 폭력 체험을 객관화하여 바라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3.3.3. 치료 고조 : 정신적 상처를 자기 서사로 표현하기

내담자가 공감을 통해 작품 서사를 이해하여 모방적 욕망에 의한 폭력성에 의해 상처받았던 자신의 ‘과거 서사’를 회상하면서, 그러한 상처들의 원인과 해소 방안을 성찰하는 것은 일종의 ‘인지적 깨달음’(전홍남, 2014:319)의 과정이다. 이러한 인지적 깨달음은 작품 서사에 대한 동일시(identification)의 효과에 의해 강화되며, 작품 서사의 인물을 자신과 연계하는 과정을 수반한다. 나아가 작품 서사 속 인물의 삶과 자신의 삶이 어떻게 비슷하고 다른지에 대한 성찰을 통해 과거의 서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인지적 깨달음을 통해 내담자가 작중인물의 폭력 체험을 자신의 것으로 되돌리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치료자는 공감적 투사(empathetic projection)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공감적 투사를 통해 내담자는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공감적 투사의 과정을 통해 내담자가 자신의 폭

력 체험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정신적 상처의 원인과 해소 방안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할 수 있게 한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이 소설에서 자살한 마리의 상황은 그때 당시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친구와 나의 상황을 생생하게 떠오르게 한다. 힘이 없어서 맞고, 그것을 말할 수도 없었던 내 자신이 너무나도 싫었었기 때문이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사건은 나의 진로 결정에도 많은 영향을 준 것 같다. 내가 교대에 진학하게 된 이유도 이 사건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 내가 당한 학교 폭력을 당시에는 힘이 없어서 대들거나 고발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내가 가르칠 아이들만큼은 절대 당하게 하고 싶지 않다.

위의 예문에서 내담자는 자신이 경험했던 과거의 학교 폭력과 그로 인한 정신적 상처를 자기 서사로 표현하면서 ‘마리’의 상처와 죽음에 대한 공감적 투사를 하고 있다. 이러한 공감적 투사를 통해 내담자는 교대생이 된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성찰하고 있다. 이러한 성찰을 통해 내담자는 어느 정도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3.3.4. 치료 마무리 : 과거의 정신적 상처에 대한 평가 및 평정심이 유지되는 자기 서사 표현하기

이 단계는 내담자가 상처받았던 자신의 과거 서사를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상처에 대한 위로받음을 통해 평온한 상태에 이른 현재의 서사를 생산하는 것과 관련된다. 이 단계에서 내담자는 마음의 평온을 확보하면서 삶의 새로운 좌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상태에 도달한다. 내담자가 이러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작품 서사에 대한 공감과 동일시를 통해 과거의 자기 서사를 성찰하여 그것을 구조화하여 이야기하는 과정을 거쳐서, 현재의 삶을 성찰하고 미래의 삶을 기획하고 예측하는 서사를 구조화할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 내담자는 자신의 과거 서사에 대한 성찰을 통해 미래에 대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서사로 구조화함으로써 현재 도달한 평온의 상태를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따라서 내담자는 과거 서사에 대한 회상과 이야기하기의 차원을 넘어서서 현재와 미래를 기획하고 ‘확신’, ‘희망’의 관점에서 삶의 서사를 새롭게 생산하는 노력을 지속할 수 있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교대생이 된 지금도 중학교 때 당했던 학교 폭력이 잊혀 지지 않는다. 그 상처는 힘의 차이에 따른 이유 없는 폭력의 잔인함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잊으려고 한다. 이제는 그 때의 일을 편하게 말할 수 있고, 장차 내가 가르칠 아이들에게도 그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말할 자신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나중에 내가 가르칠 아이들에게 학교 폭력만은 절대적으로 없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학교 폭력이 없어야만 나처럼 상처받는 사람이 더 이상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위의 예문에서 내담자는 약자에 대한 혐오감을 조성하고, 폭력적 힘을 가진 강자에게 굴종하게 하는 학교 폭력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를 표현하고 있다. 아울러 작품 서사에 대한 공감과 동일시를 통해 교대생이 된 현재의 삶을 성찰하고 미래의 삶을 기획하고 예측하는 서사를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서사의 생산을 통해 내담자는 ‘희망’의 관점에서 새로운 삶의 서사 생산으로 나아가고 있다.

4. 폭력 서사를 활용한 서사 치료 과정의 소설교육적 의의

소설은 인간 삶의 다층적이고 복잡한 상황들을 서사 형식으로 구성하여,

독자가 타자를 이해하고 인간 삶의 다층성을 해석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나아가 타자의 삶을 거울로 삼아 자기 삶의 내력을 이해하고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이러한 계기를 통해 독자는 자기 서사를 탐색하면서 정체성을 새롭게 형성할 수 있다. 이때의 정체성은 리콤프가 언급한 타자와의 교섭을 통한 공유적 자아로서의 정체성이며, 이러한 정체성의 형성을 통해 과거가 아닌 현재를 반성적으로 성찰하여 미래의 잘삶을 기획할 수 있다. 바로 이 점이 소설이 갖는 교육적 의의이다. 소설이 갖는 이러한 교육적 의의는 노드럽 프라이의 언급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노드럽 프라이는 문학을 배운다는 것이 불가능하고, 문학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만족감을 느끼면서 발전해 가는 것이 중요함을 언급했다(N. 프라이, 임철규 역, 1987(6판):46).

타자의 서사 혹은 타자화된 자신의 서사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실제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혹은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현실을 이해하고 해석하여, 경험들의 연관성을 통한 현재적 의미망을 확장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소설의 이해와 해석은 기본적으로 독자가 “자신을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일과 연결되어 있다”(손민영, 2017:271). 더군다나 교육적 의도 속에 수행되는 소설 읽기를 통해 소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독자가 자신을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 정서적 치료를 할 수 있게 한다. 특히 부정적 정서 혹은 정신적 상처를 경험한 독자가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나 자기를 성찰하여 객관화함으로써, 실체가 불분명한 문제적 자기 서사(손민영, 2017:276)의 발견과 평정심의 도달을 통한 정서적 치료를 할 수 있게 한다.

물론 이러한 평정심 도달과 치료는 일견 자기중심적 수준에 머무를 수도 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작품 서사 혹은 타자의 서사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의 축적을 통해 독자는 자기 성찰과 객관화, 평정심 도달과 타자성의 이해, 그리고 정체성의 발달이라는 확장된 지평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러한 도달은 소설교육에서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삶의 총체적 이해를 통한 인간다움을 모색하는 윤리적 주체 형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그렇기 때문에 타자의 서사 특히 모방적 욕망에 의한 폭력의 서사를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공감

적 투사를 통한 타자의 수용과 자기 객관화, 성장의 계기 마련을 통한 정체성의 발달 등을 수행하는 것은 인간다움을 위한 윤리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서사로서 소설이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형상화하여 독자에게 공감적 정서를 불러일으켜 서사 치료의 과정으로서 작품을 탐색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라는 점을 고려할 때, 폭력의 서사를 활용한 소설교육에서도 서사 치료가 갖는 의의는 크다. 소설교육이 궁극적으로 학습자의 자아 성장과 정체성 발달의 도모를 기획한다면, 이는 폭력 서사에 대한 공감적 환기를 통한 자아 성장과 정체성 발달을 지향하는 서사 치료와 맥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폭력 서사에 대한 이해를 실제 자기 삶에 적용하여, 현재와 미래의 삶에 대한 새로운 서사를 생산하여 자기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는 서사 치료는 우울과 불안을 치료하고자 하는 교육적 의도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사 치료가 작품 서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 삶에 대한 이해와 자신의 서사를 새롭게 생산하는 것을 지향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모방 욕망에 의한 폭력의 서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타자, 자기, 세계에 대한 확장된 인식을 통한 자아 성장에 초점을 두는 소설교육은 서사 치료가 갖는 교육적 의의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서사 치료는 불편한 정서나 상처받은 정서를 가진 내담자의 정서를 작품 서사 혹은 치료자의 서사를 매개로 하여 평온한 상태로 바꾸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모방 욕망에 의한 폭력의 서사를 활용한 서사 치료는 내담자의 정서가 불편한 상태에서 평온한 상태로 전이될 수 있도록 하는 나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물론 그 과정에는 내담자와 치료자의 많은 대화, 즉 서로 간의 관점 차이를 인정하면서 내담자의 목소리가 좀 더 타당하고 평온한 상태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에는 소설교육과 서사 치료를 통합하는 관점에서 그것의 교육적 의의와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한호정·이상우(2013)는 ‘문학치료의 교육적 적용에 관한 논의’를 통해 소설교육과 문학치료가 통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들

의 논의는 문학치료의 과정을 5단계로 나누고, 그 과정에서 문학교육으로서 서사 치료가 수행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나름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서사 치료와 문학교육이 어떤 점에서 통합될 수 있는지를 구체화하지 못한 점, 내담자의 정서적 불편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 점이 무엇인지를 밝히지 않은 점 등은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내담자의 정서적 불편 혹은 상처가 모방적 욕망과 관련된 폭력성이며, 그러한 폭력성으로 상처받는 내담자를 치료할 수 있는 과정을 구체화한 연구자의 논의는 많은 의의를 가질 것이다. 아울러 소설교육과 서사 치료를 통합할 수 있는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밝힌 점은 통합적 관점에서 두 분야가 갖는 의의를 극대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학교 현장의 소설교육을 통해 서사 치료를 수행하는 과정과 방법들을 마련하는 것은 소설교육의 지평을 확장하면서 갈수록 정서적 황폐화를 깊게 경험하는 학생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5. 맺음말

학교 현장에서 소설을 가르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소설 읽기 통한 삶의 총체성을 인식하면서, 타자의 삶을 통한 자기 성찰을 도모하게 하기 위함이다. 학생들은 소설의 인물이나 서술자와 같은 타자의 삶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통해 자기 성찰을 도모하면서 궁극적으로 보다 잘살을 추구하는 윤리적 실천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잘살을 추구하는 윤리적 실천은 정체성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그런데 학생들이 소설 읽기, 특히 모방적 욕망에 의한 폭력의 서사를 읽고 타자의 수용을 통해 정체성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타자 혹은 타자화된 자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필요하다. 타자 혹은 타자화된 자신에 대한 공감은 그것의 수용을 통한 자기객관화와 정체성 발달의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작품 서사를 활용한 서사 치료는 소설교육과 분리되

어 수행될 필요가 없다. 오히려 학교 현장의 소설교육에서 작품 서사를 활용한 서사 치료가 적극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모방 욕망에 의한 학교 폭력으로 상처받았거나 그것을 본 학생들이 학교 폭력으로 상처받은 작중인물에 대한 공감적 투사를 통해 정체성 형성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정체성 성찰의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아울러 정체성의 성찰과 발달을 통한 삶의 추구라는 윤리적 실천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연구자는 모방적 욕망에 의한 폭력 서사를 활용한 서사 치료의 과정을 ‘치료 도입: 작품 서사에 대한 이해와 해석’, ‘치료 전개: 작품 서사에 대한 공감 및 정신적 상처 환기’, ‘치료 고조: 정신적 상처를 자기 서사로 표현하기’, ‘치료 마무리: 과거의 정신적 상처에 대한 평가 및 평정심이 유지되는 자기 서사 표현하기’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러한 과정들은 학교 현장에서 소설을 교육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들은 소설교육에서 학생들이 공감을 통해 작품 서사를 수용하여 자기, 타자, 세계에 대한 확장된 인식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삶과 작품 세계의 상동성을 토대로 현재와 미래의 삶을 위한 방편들을 마련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설에 대한 수용을 문학적 반응으로 활성화하면서, 실제 삶의 세계를 서사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 권택영(2007), 「한국문화에 나타난 우울증과 폭력: 최근 서사를 중심으로」, 『OUGHTOPIA』 22(1),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149-168면.
- 김성진(2013), 「학교 폭력에 대한 청소년 소설의 서사화 양상」, 『문학치료연구』 26집, 한국문학치료학회, 333-354면.
- 김정진(2006), 「폭력성 고발의 서사」, 『문예비평연구』, 229-245면.
- 김진식(2016), 「르네 지라르의 모방이론 - 욕망, 모방, 경쟁 그리고 자아」, 『문학과사회』 29(1), 문학과지성사, 387-413면.
- 노드럽 프라이, 임철규 역(1987), 『비평의 해부』, 한길사.
- 르네 지라르, 김진식 옮김(2015), 『희생양』, 민음사.
- 르네 지라르, 김진식·박무호 옮김(2010), 『폭력과 성스러움』(2판 10쇄), 민음사.
- 박민규(2010), 『핑퐁』, 창비.
- 손민영(2017), 「자기 발견을 통한 성장의 글쓰기-이야기 치료의 자기 서사 탐색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100집, 한국언어문학회, 267-289면.
- 송명희(2012), 「문학의 치유적 기능에 대한 고찰(1)」, 『한어문교육』 27집,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 엄찬호(2010), 「인문학의 치유적 의미에 대하여」, 『인문과학연구』 25집,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431-435면.
- 이문열(1993), 「필론의 돼지」, 『중단편전집』, 열린책들.
- 이미혜(2004), 「Mourning Becomes Electra에 나타난 폭력의 문제: 지라르의 이론을 중심으로」, 『현대영미드라마』 17(3), 한국현대영미드라마학회, 125-155면.
- 이찬수(2016), 「모방욕망, 소수자 재생산과 그 극복의 동력: 르네 지라르의 폭력이론을 중심으로」, 『통일과 평화』 8집 2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12-249면.
- 전홍남(2014), 「성석제의 소설에 나타난 웃음의 기제와 문학치료학」, 『비평문

- 학』 54, 한국비평문학회, 303-328면.
- 정운채(2015a),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 문학과치료.
- 정운채(2015b), 『문학치료학의 실천』, 문학과치료.
- 정일권(2013), 「새로운 희생위기로서의 현대사회: 르네 지라르의 현대사회에 대한 분석」, 『철학연구』 125, 대한철학회, 313-344면.
- 조르조 아감벤, 박진우 옮김(2008), 『호모 사케르: 주권 권력과 별거벗은 생명』, 새물결.
- 조성호 · 이희경(2008), 「공감과 마음이해: 종합적 접근」, 『인간연구』 15호,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 인간학연구소, 169-202면.
- 천춘화(2018), 「김유정 소설의 폭력의 기억과 서사적 재현」, 『인문논총』 75권 1호,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271-296면.
- 한호정 · 이상우(2013), 「문학치료의 교육적 적용에 관한 논의」, 『비평문학』 47호, 한국비평문학회, 295-332면.

【Abstracts】

The Meaning of the Novel Teaching in the Epic Treatment Using Violent Epistles by the Desire

Seon, Ju-won

In humans, imitation is the driving force and the foundation of civilization. Therefore, humans, as “immune people,” always have the desire to be like or more than others. However, violence occurs when the subject of this desire is paired with a carrier of desire. The narrative of violence by this copycat desire is embodied in the leantymand and in accordance with violence by bad reciprocity, purifying violence and scapegoat mechanisms. In the case of a person who has suffered physical or mental violence, the narrative therapy significance of violence caused by copycat desires has been given, as it can lay the foundation for his or her re-discovery of self-doubt from anxiety and depression in the process of making a sympathetic projection of the violent narrative.

In this article, we divided the process of narrative therapy using the narrative of violence by mimetic desires into ‘treatment introduction: understanding and interpretation of the narrative of the work,’ ‘treatment development: empathy for the narrative of the work and awakening of the mental injury,’ ‘treatment enhancement: expressing the mental injury as one’s own,’ and ‘treatment finishing: expressing the assessment of past mental injury and equanimity.’

Key words : copycat desire, violent narratives by copycat desire, use violent narratives to treat narrative, novel educational significance of narrative therapy

이 논문은 2020년 02월 12일에 투고되었으며, 2020년 03월 17일에
심사 완료되어 2020년 03월 18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